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8호 【루계 제23170호】 주체99(2010)년 8월 6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7월 20일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령도자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원들과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의 로동자예술소조원들이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신데 대해 전하였다.

라오스통신,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도 7월 20일과 22일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마싸이야》 7월 21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교예단의 종합교예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7월 24일 로씨야통신들이 보도하였다.

이따르—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국제교예축전들에서 여러차례 최고상을 받은 평양교예단의 교예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문예방침을 구현하여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질을 반영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교예단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후비육성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인터네트통신 아르구멘띠.루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절세위인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

국제사회계는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주석께서는 미국에 의하여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을 민족적단합과 통일위업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자신께서 조선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이으시려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던 주석께서는 1994년 7월 7일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한 문건에 마지막친필을 남기시였다.

네팔잡지 《크로스 체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시종일관하나의 조선, 통일조선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해오시였다.

분렬된 나라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주석께서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을 헤아리시여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통일문제의 본질과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주석께서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였으며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시였다.

인디아신문 《디펜스 앤드 휴머니티》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방해와 도전이 우심한 속에서도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이 힘차게 전진할수 있은것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언제나 민족대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도록 하시였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골자로 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도 바로 주석께서 제시하신것이다. 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민족단합의 대강으로 되고있다.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로베르또 가브리엘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선의 통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주석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조선민족이 통일운동에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되였다.

얀마신문 《씨티 뉴스》는 조국통일은 **김일성**주석의 필생의 위업이였고 간절한 념원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주석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하나는 조국통일로선을 제시하시여 통일위업의 생명선을 밝혀주신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전체 조선민족의 리익에 부합되는 통일강령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굳은 신념과 기백을 가지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조선통일위업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 계시여 주석의 조국통일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며 조선인민은 반드시 나라를 통일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공동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이딸리아와 도이췰란드에서는 경축집회, 도서전시회가, 기네에서는 도서, 사진전시회개막식이 7월 23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이딸리아 리보르노시 스따뇨구역행정부, 공산주의재건당 리보르노시위원회, 공산주의자당 리보르노시위원회, 헤르모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 도이췰란드공산당, 기네예술 및 문화성,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기네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판성원들이 초대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딸리아공산주의재건당 리보르노시위원회 비서 로렌쪼 꼬지미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와 인류자주위업을 옹호하시였으며 국제로동운동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그이께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을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과 전쟁책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의 기치높이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면서 강성대국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이딸리아공산주의자당 리보르노시위원회 비서 미껠레 마쫄라는 지금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였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이 조선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지만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선군령도밑에 강력한 혁명적무장력으로,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조선의 사회주의승리는 굳건히 담보되여있다.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는 조선인민군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현대적군사장비와 강력한 전쟁억제력까지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야드 샬루브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이번 전시회를 조직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치렬한 반제투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칙적과정을 깊이 통찰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장구한 조선혁명사에 관통되여온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력사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그이의 선군령도로 하여 조선인민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조선에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김정일**령도자의 드팀없는 신념의 과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선군정치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로베르또 가브리엘레와 국제비서 빠올로 뻬오삐가 7월 26일 공동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담화에서 오는 8월 25일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선군혁명령도로 나라의 전반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조선에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군대가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인민경제여러 부문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최근 미국은 1950년에 조선전쟁을 일으켰다가 참패를 당한 교훈을 망각하고 새 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는 심각한 정치, 경제위기에 빠져있으며 그들의 지배권은 날을 따라 약화되고있다. 미국내에서는 이러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튀여나오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그 책임을 넘겨씌워 새 전쟁의 구실을 찾으며 반공화국, 반사회주의깜빠니야를 벌리기 위해 미국이 조작해낸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적경험은 미제국주의가 어느때든지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제국주의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자그마한 주저나 동요도 없이 강경하게 맞받아나가면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조선인민과 조선식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

례성강청년2호발전소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토산 8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가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벅찬 시기에 대규모의 발전소가 완공된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승리로 된다.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재부로 훌륭히 일떠선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가 준공됨으로써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준공식이 5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내각총리 최영림동지와 최룡해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허택전력공업상, 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 배달준국가건설감독상, 건설자들, 돌격대원들, 지원자들, 성, 중앙기관, 련관단위와 도내 일군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영림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영웅적투쟁을 벌려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의 완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이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황해북도인민들과 전체 건설자, 지원자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으며 례성강에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여 황해북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례성강발전소를 황해북도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아주시고 건설설비와 자재 등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시련을 뚫고 례성강청년1호발전소를 건설한데 이어 대규모의 례성강청년2호발전소를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하면서 축하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앞선 건설공법들을 널리 창안도입하여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국가에 큰 리익을 주었을뿐아니라 방수로옆의 논밭들을 규모있게 정리하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워 발전소지구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는 숭고한 애국심을 발휘하였다.

례성강청년2호발전소의 구조물마다에는 제힘으로 락원을 꾸려나가려는 일념을 안고 악전고투하며 결사전을 벌려온 황해북도인민들과 전체 건설자, 지원자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공사가 완공됨으로써 황해북도의 전기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을 통하여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당의 요구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에로 노도치며 내달리는 영웅적조선인민의 대고조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 당이 지펴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례성강공격정신으로 용감히 헤치면서 대규모의 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낸 건설자들의 위훈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례성강청년2호발전소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우리 당의 위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최룡해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인민이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자랑찬 창조물로 일떠선 례성강청년2호발전소 준공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례성강발전소의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올해 정초 공사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계단식발전소건설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물길굴과 언제 등 방대한 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해제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황해북도청년돌격대와 녀맹돌격대, 시, 군돌격대대원들과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례성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로동계급을 비롯한 도내 근로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수십리구간의 물길과 물길굴, 잠관, 방수로공사와 언제기초굴착 및 성토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끼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지난 기간 나라의 동력기지건설에서 영예를 떨쳐온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취수언제와 발전기실공사, 발전기와 수문 등 설비들의 조립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중앙전력설계연구소와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 등의 설계일군들은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로 언제와 발전기실, 방수로설계를 합리적으로 하여 건설기일을 단축하고 공사의 질적수준을 보장하였으며 발전소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 황해북도의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 각계층 근로자들은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 건설자들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여 발전소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설자는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가 훌륭히 일떠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결사관철의 의지로 폭풍쳐달려온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과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도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계단식발전소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모든 대상물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건설지휘부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킴으로써 례성강청년3호, 4호, 5호발전소건설의 완공을 앞당겨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례성강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발전설비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며 발전기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완공된 발전소가 은을 내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례성강발전소건설지휘부 책임자 류정민, 례성강발전소 지배인 김금철, 례성강발전소건설청년돌격대 대대장 리광철,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장정주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부강조국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수령님의 리상을 꽃피우는 전설적강행군

희천전선과 더불어 길이 전할 불멸의 영웅적장정을 더듬어

２０１０년은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해이다.

예측할수 없는 사변, 놀라운 소식들이 련속 터지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천만의 가슴을 격렬한 환희의 파도를 아름껏 그러안는 심정에 휩싸이게 한다.

위대한 현실은 위대한 력사속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생의 라침판, 조선의 진정한 국력이 무엇인가를 암반마냥 뿌리깊이 새겨주는 력사의 땅 희천,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얼마나 비상한 속도로 장쾌하게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전선.

오늘 우리 조국의 희한한 력사,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의리의 력사, 불굴의 헌신의 력사이다.

우리 조국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세계를 놀래우는 희천전선은 위대한 력사가 어떻게 엮어지는가를 실증하는 축도이다.

충정의 길, 의리의 길

머지 않아 온 세상에 자랑높이 선포할 완공을 앞두고 일대 고조에 이른 희천전선,

하늘높이 치솟는 룡림언제, 아득히 펼쳐질 호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산정에 서면 평양하늘을 바라보시며 수령님! 드디여 장자강, 청천강 굽이굽이에 발전소들을 건설하시려던 수령님의 리상이 실현되였습니다!라고 충정의 보고를 삼가 올릴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삼삼하여 심장이 쿵쿵 높뛴다.

벌써 ５０여년전 조선로동당 제３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나라의 전력자원탐사와 개발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이 일대에서의 전력자원조사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실현에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용감무쌍히 불러일으키는 희천속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장중한 소리가 메아리치는 바로 여기에 서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업은 철두철미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임을 사무치게 절감하게 된다.

황홀한 파수의 바다, 장쾌하게 흐르는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산, 광활한 CNC바다를 일거에 바라볼수 있는 희천,

보다 눈부실 내 조국의 래일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오르게 하는 여기 희천,

한순간 하얀 비단필같은 구름이 손에 잡힐듯하고 한순간 여기저기에서 비물이 사품쳐내리는 도양령의 높고 험한 산발을 타보지 못한 사람은 희천발전소의 지위와 위력에 대하여, 조선의 위대한 강성대국건설대전사에 대하여 안다고 말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수령님의 탄생 １００돐이 되는 ２０１２년까지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희천발전소를 건설하는것도 수령님의 유훈입니다.》

지금은 땀을 철철 흘리는 무더운 여름철이다.

하지만 여기 희천전역에서는 １월의 사나운 눈보라가 잦지 않는다.

날로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는 우리의 강성대국, 그 비약적인 발전속도를 저지시켜보려고 눈에 피발을 세우고 원쑤들이 별의별 추악한짓을 일삼던 그 시각, 천만의 뜨거운 심장들이 오직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로만 달리던 때,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실현을 위한 열풍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쾅쾅 두드릴 열화같은 충정과 의리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희천전선에로의 력사적인 눈보라강행군을 단행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희천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은 희천발전소건설장이다.

걸음걸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이런 순결한 충정으로 새들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 멀리 떠나간 얼어붙은 대지를 한치한치 녹이시며 길아닌 길을 헤쳐가신 경애하는 장군님,

천만의 가슴에서 불덩어리가 이글거리게 한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눈보라강행군은 보라, 우리가 어떻게 수령님의 리상을 꽃피우는가 하는 진리로 만민을 감복시킨 불세출의 혁명가의 충정과 의리의 영웅적인 장정이였다.

강도 일제를 쥐락펴락하시던 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의 항일전의 모습으로, 무적필승의 비범하고 걸출한 장군의 기개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환적국면을 장엄히 열어제끼는 진군길에 과감히 나서신 경애하는 장군님.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실현의 불바람이 다시한번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땅에서 일어번지게 하자.

적들이 아무리 어찌고어찌고해도 우리는 보다 휘황찬란할 래일을 마중하여 승리의 신심드높이 총돌진할것이다.

바로 이것이 올려다보기만 하여도 눈앞이 아찔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미끄러운 도양령을 오르실 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장을 끓어번지게 한 열원이 아니였던가.

밖에 잠간 서있자 하여도 온몸을 사정없이 얼구는 －３０℃.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릴 그날을 안고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슴속엔 용암이 이글거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희천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평양시의 전기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건설자들의 심장에 수령님의 리상실현의 불을 활활 지펴주시였다.

열혈혁명가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우러르며 그이의 사랑하는 병사들모두가 눈물로 볼을 적시고 우러러 터치는 환호성으로 얼어든 대지에 허연 입김안개를 뿜어올리지 않았던가.

아, 어버이장군님!

어찌하여 부디 살을 에이는듯한 날에 험한 산발을 타시였단말입니까.

그이께서 서계시였던 력사의 그 자리를 삼가 더듬어보는 사람마다 심장을 치는 이런 충격을 억제하지 못한다.

희천발전소,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아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나라의 방방곡곡에 더 많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당부가 되새겨져 심장의 피를 끓이시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얼마나 눈물겨운 력사가 여기 장자강, 청천강 굽이굽이에 숭엄히 아로새겨졌던가.

어느덧 한해가 지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선을 찾으시여 지펴주신 새로운 대고조의 열풍이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로 타번지던 격동적인 시기였다.

더 많은 쇠물을 끓이고 더 많은 석탄을 캐기 위해서도, 늘어나는 수송수요, 인민경제의 보다 큰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력이 요구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제한번 헐하고 편안하게 한적이 있는가, 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희생을 동반하는 어려운 대자연개조사업이지만 우리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다는 혁명적신념으로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그전에 수령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였지만 자강도에는 강이 많기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할 자리가 적지 않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민들이 전기그리움을 모르는 락원에서 살날을 그처럼 바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나깨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이런 충정의 일편단심, 영원한 수령님의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의 더운 피를 끓이시며 발전소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터전을 잡아주시기 위해 험난한 길을 헤치시였던것이다.

３월이라고 하지만 여간 쌀쌀하지 않은 북방이였다.

아아하게 치솟은 산발들, 소연한 물소리, 막돌판…

려장도 채 풀어놓지 못한 때여서 그이를 모실 천막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하여 군인건설자들의 마음 얼마나 송구하였던가.

그 지극한 심정을 헤아리시며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멀고 험한 건설장들에 남먼저 찾아가는것이 이제는 나의 습관으로 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초행길을 남먼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주저앉는 길도 서슴없이 헤쳐나가는것이 나의 혁명적기질이며 일본새입니다!

그 길이 우리 인민을 열화같이 사랑하고 위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리상을 한시바삐 실현하는 길이기에, 그 길에서 양보나 후퇴를 추호도 허용치 않으시는 충정의 화신이시기에 그 길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신 열혈혁명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정과 의리의 세계는 이렇듯 날이 갈수록 강렬해지는 일편단심의 세계였다.

물소리만 들리는 한적한 곳에 우리 장군님을 처음으로 모시였던 그 자리를 이제 더는 찾아볼수 없다. 그우에 언제가 아아하게 솟구치였기때문이다.

허나 순간순간 영광의 그날에 사는 건설자들의 순결한 마음속에는 거룩한 자욱어린 그 자리가 희천전선의 가장 신성한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빛나고있다.

오직 어버이수령님께로만 향하는 그리움으로 우리 장군님 평양에서 멀고 험한 산과 령들을 무수히 넘어야 하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한해에도 몇차례나 찾으시였던가.

찾으실 때마다 ２０１２년을 향하여 총돌진하는 투쟁과 비약의 롱마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지난 시기에는 희천발전소와 같은 발전능력이 큰 대규모수력발전소를 건설하자면 １０년나마 걸렸는데 희천발전소건설을 ３년동안에 끝낸다는것은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천발전소건설을 수령님의 탄생 １００돐이 되는 ２０１２년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 당에 충실한 군대와 인민이 있고 또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강력한 주체공업의 뒤받침이 있는것만큼 희천발전소건설을 얼마든지 ３년안에 끝낼수 있다. …

《수령님을 찾아가자!》

천만의 심장을 숙연하게 하며 치밀어오르는 불덩어리로 목이 콱 메이게 하는 김일성민족의 이 영원한 넋,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서 자나깨나 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북받쳐오르게 하며 어떤 신념과 자세로 수령님께로 가야 하는가 하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우리 천만군민의 강렬한 심장의 토로이다.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갈 충정의 송가높이 천만을 산악같이 불러일으키는 수령님의 리상실현의 눈보라,

눈비는 내리고 내려 땅속깊이 잦아든다.

허나 어버이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 어버이장군님의 충직한 아들딸들인 우리의 가슴에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실현할 불타는 열망으로 장군님께서 헤치신 엄동설한의 눈보라는 쉬이 잦지 않는다.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놓으시고 그 한조항, 한조항에 성공의 붉은기를 꽂는 심정으로 불멸의 영웅적인 장정을 수놓아가시는 위대한 충정의 화신 김정일동지!

그 어떤 대적도 일격에 짓부시고 그 어떤 고지도 단숨에 돌파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위대성이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가를 전하며 백두산총대바람, 강계의 눈보라와 함께 희천의 눈보라는 천만년세월과 더불어 인민의 가슴에서 영원히 잦지 않을것이다.

혼연일체의 정화

희천격전장, 여기 서면 김일성민족의 제일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수 있다.

희천의 용사들이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가를 아는것도 중요하다.

보다는 과연 무엇이 그들의 정신력을 추동하였는가를 아는것이 중요하다. 참다운 력사는 그것을 위하여 바친 절세의 위인의 고결한 신념과 헌신에 의하여 엮어지기때문이다.

《장군님마음속에 룡림이 있고 우리의 심장속에 평양이 있다!》

아득히 치솟는 언제, 산허리를 휘감으며 기치마냥 나붓기는 이 글발은 오직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시며 불면불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드릴 우리 천만군민의 높뛰는 심장의 박동소리, 조선의 숨결이다.

영웅조선의 희천속도, 이는 위대한 김정일강국의 혼연일체의 분출이다.

희천발전소건설장은 주체혁명위업의 력사적전환기에 령도자와 인민이 어떻게 한마음한뜻으로 비상한 사변을 안아왔는가를 웅변하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대전장이다.

여기에 서면 불타는 １２１１고지, 피의 락동강도하전투의 기수인양 돌격전의 제１선에서 비호같이 달릴 기개로 피가 펄펄 끓어번진다.

한줌한줌의 흙과 한삽한삽의 혼합물이 어떻게 다져져 하늘높이 쌓아지는가를 격렬한 감동으로 체험하게 하는 희천전선,

어버이장군님의 마음속엔 희천이, 희천의 전사들의 심장속엔 애오라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파도가 격랑치는 여기에 희천의 기적을 낳게 하는 원천이 있다.

온 나라가 희천으로 마음과 마음을 달리게 하여 비상한 속도로 민족만대번영의 새 력사를 펼치자,

바로 이것이 희천전선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 사랑이고 강성대국승리에 대한 그이의 철석같은 확신이다.

별들도 잠든 깊은밤에도, 아침을 부르는 새별이 청신한 빛을 뿌릴 때에도 마음은 언제나 희천에 두시고 희천의 사랑하는 전사들과 함께 충정의 언제를 쌓고 그리움의 물길굴을 뚫는 심정에 휩싸이시는 분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이번에 가서 희천용사들에게 무엇을 해줄것인가.

３년동안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끝낸다는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웬만한 각오와 투지가 없이는 해내기 힘들다. 그러나 동무들은 꼭 해낼것이다. 나는 동무들이 안변청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한것을 직접 목격한 증견자이다.

우리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세기적인 대자연개조사업도 마음먹은대로 척척 해제낄수 있다.

희천의 용사들은 결사관철의 투사들이다. 희천의 용사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여 영웅조선의 기상을 다시한번 만방에 높이 떨칠것이다. 우리는 승리를 락관하고있다. 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는다!

이처럼 하늘보다 더 큰 믿음은 그이께서 희천의 용사들에게 안겨주신 가장 값높은 재부였다.

바다도 통채로 메우게 하는 이런 믿음을 안고 오시여서는 언제를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를 료해하시기전에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광휘롭게 아로새기신 병사들의 친근한 어버이.

발전소건설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하겠습니다. 건설자들의 숙식조건을 비롯한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건설지휘부 일군들은 발전소건설자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숙식조건을 비롯한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언제건설장에서 병실까지 거리가 먼데 우리 군인들이 그 구간을 걸어다니느라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

친어머니의 마음도 가닿지 못할 이런 혈육의 정과 열을 안으시고 걸음걸음 전설같은 사랑을 수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동무들이 갱에 콩크리트피복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 갱도 나의 병사들이 일하고있는 곳이다, 나는 병사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다 가보자고 한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것도 우리 병사들이 물길굴을 다 확장하였다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직접 보고싶어서이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함께 들어가자고 하시며 사랑하는 아들들의 피와 땀이 슴배인 물길굴에 주저없이 들어서신 어버이장군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불굴의 의지로 물길굴을 뚫은 안변청년발전소 용사들의 위훈을 영원히 새기시려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사품치는 격랑을 일으키시던 그날의 그 모습 그대로이시였다.

한걸음, 한걸음 옮기시며 내가 오늘 조압수조공사장에 들어와보기 잘하였다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군인건설자들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땀흘려 건설한 이 거창한 창조물을 보지 못할번하였다고, 앞으로 발전소가 조업하여 여기에 물이 차면 이 조압수조를 영원히 볼수 없을것이라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뜨겁게 말씀하실 때 누를길 없는 오열에 병사들의 어깨가 끝없이 물결치지 않았던가.

희천전선의 돌격대원들이 녕원발전소건설을 끝낸 다음 인차 희천발전소건설장으로 기동하다보니 기념사진을 찍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찍으려고 한다고, 내가 녕원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고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동무들과 기념사진을 찍지 않으면 누구와 찍겠는가고 하시며 전사들모두를 사랑의 꽃방석에 앉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역시 군대가 다릅니다.

아주 잘하였습니다. 정말 장쾌하고 멋있습니다.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들의 일본새와 혁명적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행복을 아름껏 안은 격렬한 환희로 희천용사들의 가슴 금시라도 터질듯하였다.

뵈올 때마다 강철의 령장이시기전에 한없이 다정하신 친어버이를 만난듯 감격에 울고 가슴가득 차오르는 결사옹위의 맹세로 눈물을 흘리는 희천의 용사들이다.

오르시였던 차에서 다시 내려 아득한 언제꼭대기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일하는 사랑하는 병사들을 향해 점도록 뜨겁게 손을 흔들어주신 어버이장군님,

너무도 감격이 극하여 서로서로 얼싸안고 만세의 환호로 산을 진동한 희천의 용사들,

이처럼 눈물겨운 화폭이 과연 어느 시대에 펼쳐진적 있었던가.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을 원천으로 하는 혼연일체가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 영웅조선의 혁명적본때를 떨치는 기상, 희천속도를 낳고 강대한 선군조선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을 위한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영생의 진리를 자양분으로 투쟁하고 한시바삐 장군님을 강성대국승리의 단상에 높이 모실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에 사는 희천의 용사들이 희천땅전역에 바친 고귀한 피와 땀을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일념으로 터전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믿고 최전선에 내세워주시였는데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면 우리를 어찌 장군님의 병사들이라 하겠는가. 장군님께서 사나운 희천바람을 맞으시며 멀고먼 희천을 찾고 또 찾으시는데 그이의 의도를 받들지 못하면 장군님의 사랑을 받는 돌격대자격이 없다. …

희천전선의 분과 초는 이런 열원으로 흐르고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경애하는 장군님 찾고찾으실 때마다 후손만대를 담보할수 있도록 최상의 질을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그 원대한 뜻을 받들어 어머니조국의 만년초석을 쌓아가는 희천용사들의 심장의 분출인 이 글발,

조압수조건설장 굴벽에 새겨져있던 이 구호가 어떻게 전당, 전군을 추동하는 신념과 락관의 구호로, 창조와 전진의 기치로 빛날수 있게 되였는가.

강철의 백전로장, 혁명의 천만년 미래를 락관하는 위대한 락천가만이 시대의 지향, 인민의 의지가 넘치는 이런 구호를 무한히 사랑하고 실천에 구현할수 있으며 그 위력을 백배천배로 증폭시킬수 있는것이다.

오늘 물길굴에서 본 그 구호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우리 병사들만이 생각할수 있는 정말 훌륭한 구호라고, 온 나라가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어버이장군님,

령도자와 인민이 마음만 합치면 산중에 바다를 떠옮기는것보다 더한 기적도 능히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세계의 면전에서 힘있게 확증한 영웅조선의 자랑 희천속도,

령도자의 마음속엔 자나깨나 사랑하는 군대와 인민이 있고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엔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 일편단심만이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조선혁명의 천하지대본 혼연일체,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신념을 함께 하며 일떠세우는 이 거창한 대자연개조전투장에 서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우리 령도자, 우리 당, 우리 인민 만세! 백전백승의 선군정치 만세!를 목청껏 터치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다.

혼연일체의 절정—희천전선,

강성대국승리의 축포소리가 제일 가까이에서 울려퍼지고 어느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려고 하는가 하는 백두산호랑이의 불호령이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이 메아리치는듯한 불타는 희천땅에선 끝간데없이 펼쳐진 선군조선의 앞날이 휘황찬란히 보인다.

사람들이여, 그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희천바람, 강성대국건설바람을 가슴에 안고 사시라.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는 조선의 정신으로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심장을 끓어번지게 하는 희천땅에 마음을 얹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영웅조선의 기상, 희천바람을 거세차게 일으키라.

영광의 ９월을 향하여, １０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달음치는 우리의 세대들이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를 잊지 못하며 위대한 태양의 업적 길이길이 노래하듯 불야성이 넘쳐나는 락원에서 만복을 누려갈 세대들은 위대한 한평생을 혁명의 수령을 위한 일편단심으로 민족의 정신력에 불을 지펴 만난을 용감무쌍히 헤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화같은 충정의 세계를 무궁토록 사랑하며 전해갈것이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최전선으로 정하시고 충정과 헌신의 자욱자욱을 아로새기신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시는 그이의 최대의 경의로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 ７０돐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 ７０돐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５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최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태형철 사회과학원 원장, 혁명사적, 과학, 교육, 당간부양성기관 일군들, 교원, 연구사, 강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에서 천명하신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독창성과 진리성, 회의가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해설론증한 ５건의 론문이 발표되였다.

사회과학원 소장 교수, 박사 송동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소할바령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을 새로운 전략적단계로 발전시켜 최후승리의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주체２９(１９４０)년 ８월에 열린 소할바령회의는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에 전략적로선을 바꾸기로 결정한 력사적인 회의로서 항일혁명투쟁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시 급변하는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적단계를 새롭게 규정하시고 투쟁목표와 방도를 제시하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독창적인 전략적로선과 투쟁방침을 내놓으시여 조국해방의 담보를 마련하신 여기에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있으며 이 회의가 항일무장투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고급당학교 강좌장 부교수 김수길은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된 조선인민혁명군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총대의 위력으로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새 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 독창적인 방침》이라는 제목의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그를 주도적핵심력량으로,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강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자주적이며 부강한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힌 독창적인 로선이였다.

혁명의 앞날까지 내다보고 조선인민혁명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성취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건당, 건군, 건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추진할수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최수남은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된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방침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게 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방침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승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광활한 지대에서 주도권을 쥐고 항일혁명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 전략적방침이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고 항일무장투쟁을 보다 넓은 판도에로 확대하며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준비를 원만히 갖출수 있게 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이것은 령활한 전략전술과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령도력을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소할바령회의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과 반제반파쑈투쟁의 강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김창남이 토론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７０년전에 소집된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적방침은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며 세계혁명을 추동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３면으로 계속

조국해방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금야군 흥평리당위원회에서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현실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연혁소개실을 새로 잘 꾸려놓은데 기초하여 연혁소개실참관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백두산위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속에 자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어온 농장의 력사를 누구나가 잘 알고 선군시대 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연혁소개실에 농장포전들을 희한한 사회주의대지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게시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잘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농촌건설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농사일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최만열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경공업혁명의 불길높이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자

당의 숭고한 뜻을 꽃피워갈 한마음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대중적인 인민소비품생산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신 때로부터 스물여섯해가 되였다. 각지 시, 군일군들과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였다.

이들은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떳떳이 들어서려는 만만한 투지에 넘쳐 올해에 매달 맡겨진 소비품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각지 시, 군들에서는 올해에 8월3일인민소비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가내작업반대렬을 늘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기지를 끊임없이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8월3일인민소비품의 기본품종수를 수백종이나 늘이였으며 시, 군직매점들에 질좋은 일용품, 가정용품, 섬유제품들을 더 많이 채우고 언제나 손님들로 흥성이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군중적으로 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그들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게 하는 폭넓은 대중운동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3(1984)년 8월3일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경공업공장들과 평양시안의 구역, 군들에서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만든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소비품생산투쟁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스물여섯해전의 그날 가내편의봉사원들이 만든 자그마한 세소상품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며 집에 들어간 사람들가운데 재간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쓸모있게 잘 만들었다고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은 오늘도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주체75(1986)년 5월 평양시 8월3일인민소비품직매점사업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안의 소비품생산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또다시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을 더 잘하도록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 방도를 제시해주시고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에는 인민소비품의 질문제부터 료해하시고 인민들이 많이 쓰는 세소상품들을 잘 만들도록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도록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지펴주시였고 신의주초물생산협동조합에서 만든 초물모자도 몸소 써보시면서 소비품생산자들의 애국적열의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리고 자그마한 농촌상점들도 찾으시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봉사활동을 잘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속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세차게 타번져가고있으며 각지 시, 군일군들과 소비품생산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긴 각지 일군들은 지난 기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을 근기있게 벌리도록 대중을 적극 발동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시, 군당책임일군들이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더 높여 직매점매대를 언제나 주민들로 흥성이게 하기 위하여 애써 일하고있다.

평양시, 남포시, 량강도를 비롯한 각 도, 시의 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8월3일인민소비품들을 질좋게,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일군들이 늘 관심을 돌리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도록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고있다. 특히 평양시 평천구역의 책임일군들은 언제나 들끓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생산자들속에서 질좋은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종자를 찾아주고 방도를 탐구하도록 적극 계발시켜나가면서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고있다.

각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정을 안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함흥시, 청남구, 연안군, 삼지연군, 천리마구역을 비롯한 각지 시, 군(구역)들에서 가내작업반, 가내편의봉사원대렬을 늘이고 소비품생산기지를 잘 운영하여 매달, 매 분기 소비품생산액계획과 직매점판매류통액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신의주신발공장, 평천일용필수품공장, 은률광산, 웅진군농기계작업소 등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부쩍 늘일 높은 목표밑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더 잘 꾸리고 올해에 만도 수많은 새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높여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각지 시, 군가내작업반관리소들에서도 가내작업반대렬을 늘이고 가내작업반원들과 가내편의봉사원들의 생산열의를 높여주어 인민들이 좋아하는 소비품들을 직매점들에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만포시, 대동강구역에서는 유휴로력으로 가내작업반을 더 많이 조직하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직매점이 늘 손님들로 흥성이게 하고있다.

선교구역, 형제산구역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모든 구역, 군들에서는 직매점을 통한 소비품의 질과 량, 가지수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가고있다.

원산시직매점의 봉사자들은 자체로 생산기지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화하고 봉사조직과 봉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들에게 질좋은 인민소비품이 골고루 차례지게 함으로써 인민의 사랑받는 봉사일군들로 불리우고있다.

오늘 전국의 모든 일군들과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10월의 대축전을 빛나게 장식하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비약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성천강구역직매점을 찾아서

기쁨넘치는 매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하여 인민소비품문제를 풀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될것입니다.》

얼마전 함흥시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성천강구역직매점이라는 간판이 나붙은 건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광경을 보게 되였다. 호기심을 안은 우리의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해졌다.

직매점은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우리는 주민들속에 끼워 매대에 진렬된 갖가지 제품들을 눈여겨보았다. 나이별에 따르는 운동복과 치마저고리, 편직옷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은옷들이 매장에 차있었고 쓸모있게 만든 철제일용품들과 가정용품들, 각종 목제품들과 수지제품들이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있었다. 더욱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매장마다에 나붙은 단위명칭이였다.

하나하나의 제품마다에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소비품생산을 늘여가는 생산자들의 열정넘친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아 우리는 무심히 볼수 없었다.

함흥후방가족은하피복공장이라는 명칭이 나붙은 매대에 서있는 판매원에게 자기 소개를 한 우리는 구역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잘되고있는것 같다고 느낀 소감을 말하였다. 판매원은 몹시 반가와하며 말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더욱 늘어나고있습니다. 생산량뿐아니라 제품의 가지수도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늘어나 우리 직매점은 늘 손님들로 흥성이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직매점의 일군들이 생산단위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소비품을 제때에 알려도주고 쓸모있게 생산하도록 지혜를 합쳐가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때 매대에 다가온 한 녀성이 자기 아이한테 잘 어울릴것 같다고 하면서 색갈고운 아동모자를 요구하였다.

모자를 들고 기뻐하는 그 녀성의 모습을 보면서 판매원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저 아동모자만 보아도 자투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까. 구역안의 가내작업반들에서는 자투리천을 가지고 갖가지 제품들을 쓸모있고 질좋게 만들어 수요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우리는 류달리 녀인들로 흥성이는 함흥일용품공장이라는 명칭이 나붙은 매대로 갔다. 이곳 매대에는 호스, 물통 등 갖가지 수지제품들이 진렬되여있었다. 그중에서도 수요가 높은 제품은 수지단지였다. 척 보기에도 여러가지 남새절임에 적합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매원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함흥일용품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제품인데 모양이 곱고 질이 좋을뿐아니라 쓸모가 많아 주민들속에서 수요가 높다고 한다.

《생활에 필요한것이 있으면 직매점을 자주 찾아오군 합니다. 부엌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옷걸개, 절구, 쓰레박 등 없는것이 없습니다.》

성천강구역 서문동에서 살고있다는 한 녀성이 즐거움에 넘쳐 우리에게 하는 말이였다.

우리의 시야에 민속놀이매대에서 다루기 편리하게 조립식으로 만든 장기판과 별꼬니판을 사들고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비껴들었다.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다음매대로 걸음을 옮기는데 생산단위들에 나갔던 지배인이 직매점으로 들어섰다.

우리와 만난 그는 몹시 반가와하였다. 그러면서 8월3일인민소비품을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 여러 공장, 기업소, 동가내반의 생산자들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을 널리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굳이 여러 생산단위들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직매점에 진렬된 여러가지 형태의 질좋은 소비품들과 주민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의 열의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느낄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기쁨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직매점을 나서는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우리는 직매점을 돌아보면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우리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깊이 느끼였다.

본사기자 리철옥

연안군에서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여

연안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입니다.》

올해초 어느날 군당위원회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문제를 놓고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은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같이 지혜를 합치면 인민들이 요구하는 새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일군의 호소에 군일군들이 적극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생산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유휴자재로 인민소비품을 쓸모있게 만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는 한편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군적으로 수십개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단위가 조직되였으며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군의 일군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비품생산단위들에 내려가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었다. 군기와공장 가내작업반에 나간 군의 책임일군은 소비품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리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또한 수요가 높은 시루와 화분 등 갖가지 제품을 질좋게 생산하도록 하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은 군농기계작업소와 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도 힘있게 벌어져 쓸모있는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이 대량생산되고있다.

얼마전 군에서는 각 단위들에서 생산한 8월3일인민소비품을 전시해놓고 제품품평회를 진행하였다. 품평회에는 가내작업반과 부업작업반에서 부산물과 농토산물, 자연원료와 재배원료를 리용하여 만든 180여종에 3 650여점의 소비품들이 출품되였다. 출품된 소비품들은 가지수가 다양하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늘도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갈 한마음안고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늘여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특색있게 진행된 전시회

평양시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얼마전 평양시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평양시안의 구역, 군들에서 출품한 1 400여종에 5만 8 300여점에 달하는 8월3일인민소비품들이 전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세소상품들과 새로 개발된 여러가지 인기있는 민예품, 목제품, 지은옷 등이 구역별로 전시되여있었다.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려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의 열의는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제품의 가지수는 지난 시기에 비하여 1.3배이상 늘어났으며 그 질이 현저히 개선되였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시인민위원회 국장 고인실동무의 긍지에 넘친 말이였다. 그는 우리에게 평천구역, 대동강구역, 선교구역, 형제산구역, 락랑구역을 비롯한 많은 구역, 군들에서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질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고있는 평천구역에서는 이번 전시회에도 여러가지 쓸모있는 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내놓았다. 특히 녀성들이 리용할 화장품가방과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연, 필갑 그리고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접속구, 신선로 등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의 걸음은 많은 참관자들로 붐비는 대동강구역전시대에로 옮겨졌다. 이채를 띠는 여러가지 소비품들이 꽉 들어찬 전시대에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정형을 보여주는 도표가 걸려있었다. 그 도표를 보니 해마다 평균생산액이 계통적으로 장성하고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기지와 함께 생산자대렬이 늘어났으며 품종도 확대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대동강구역가내반관리소 소장은 여러가지 민예품과 어린이용뜨개모자, 문수식료공장에서 출품한 갖가지 식료품이 특색이 있어 참관자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고 자랑하였다. 특히 문수식료공장가내작업반에서 만든 빵, 강정, 강냉이변성국수, 강냉이단묵 등은 질이 매우 높아 전시회기간 많은 참관자들의 주문봉사를 받았다.

우리는 여러 참관자들이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고있는 형제산구역전시대도 돌아보았다. 형제산구역에서는 이번에 기발한 착상으로 갖가지 새 제품을 개발하여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구역에서는 주철로 만든 여러가지 형태의 가마와 불고기판, 조롱박으로 만든 제품들을 전시하여 참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우리는 전시회기간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기술교류를 활발히 벌리였습니다. 그 과정에 수요자들의 요구를 더 잘 알게 되고 생산작업반을 잘 운영하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하고 쓸모가 있게 만들어 봉사활동을 잘해나갈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였습니다.》

평천구역직매점 지배인 박순일동무의 말이였다.

전시된 하나하나의 제품들마다에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여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비껴있었다.

본사기자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에 대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 함주군직매점에서 —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만포시건물보수사업소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지난 7월에도 맡겨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사업소일군들은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그들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목공작업반원들을 비롯한 사업소의 로동자들은 지혜와 재능을 합쳐 지방의 특성에 맞는 소비품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최근에만도 사업소에서는 기본제품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로 윷놀이판, 사진액틀 등 20여종의 8월3일인민소비품을 질좋게 생산하였다.

특히 사업소의 일군들은 늘 직매점에 나가 자기 단위에서 생산하는 소비품들중에서 어느 제품이 수요가 높은가를 알아보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올해에만도 로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탁상일력판, 특색있는 3단사진액틀, 갖가지 형태와 색갈의 목제품 등 여러가지 품종의 인민소비품을 더 늘이였다.

박유정

2면에서 계속

회의에서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과업과 투쟁방침, 당면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방침,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 등이 명확히 제시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매개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태도, 투쟁에서 가져야 할 전략전술 등 리론실천적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소할바령회의는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력사적인 회의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 실장 부교수 김영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의무》라는 제목의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이 숭고한 의무로 되는것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김일성**조선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홍단군에서 많은 물거름 생산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받들고 대홍단군에서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여 감자밭에 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홍단군을 찾으실 때마다 감자농사에서 기본은 좋은 종자를 심고 거름을 충분히 내며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군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줄기찬 투쟁을 벌려 상반년기간에 물거름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배이상 늘이였다.

물거름을 많이 생산하여야 감자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이들은 돼지마리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목장들에서는 고산지대에 적응된 새끼돼지생산체계를 세우고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백산돼지목장 일군들과 관리공들은 물거름받이시설을 꾸려놓고 날마다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고있다.

온도보장을 잘하여 추운 겨울에도 생산을 짜고든 농사동, 홍암, 신덕돼지목장에서도 물거름을 제때에 포전들에 실어내갔다.

군에서는 모든 포전들에 물거름을 많이 내여 좋은 감자작황을 마련하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안고 당면한 감자밭비배관리에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콩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실정에 맞는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신천군 송오협동농장에서

요즘 신천군 송오협동농장의 콩포전에 가면 검푸른 잎새를 펼치고 왕성하게 자란 콩포기들을 볼수 있다. 올해의 콩농사전망을 담보하는 흐뭇한 광경이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콩은 원그루로도 심고 두벌농사뒤그루로도 심으며 사이섞음그루와 겹재배같은 방법으로도 심어야 합니다.》

농장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콩농사를 하고있는것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이 농장의 콩농사경험을 분석하여보면 주목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콩영양단지모를 키워 옮겨심은것이다.

올해초 어느날이였다. 관리위원장 채영일동무의 방에서는 농장일군들이 모여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한해농사대책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있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된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콩농사를 더 잘 짓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사실 지난 기간 농장에서는 당의 콩농사방침을 받들고 콩생산을 늘이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이였다. 적지도 바로 정하고 김매기도 다른 작물들과 다름없이 하였으며 비료시비도 적기에 하였다. 그런데 수확고는 여전하였던것이다.

모두가 방도를 모색하고있을 때 불쑥 기사장 김성복동무가 일어섰다.

《몇해동안 창조한 좋은 경험을 올해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입시다.》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그러는 일군들을 둘러보며 기사장은 이런 말을 하였다.

콩영양단지모를 옮겨심으면 좋은 점이 많다. 우선 콩의 초기생육을 좋게 할수 있고 종자를 절약하며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할수 있다. 더욱 좋기는 논이 기본면적을 차지하고 밭면적이 제한되여있는 농장의 실정에서 영양단지모는 밀, 보리를 가을한 다음에 옮겨심어도 되므로 부침땅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어 더욱 좋은것이다. 그리고 김매기로력도 절약하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도 거의나 입지 않게 된다.

이렇게 콩영양단지모옮겨심기의 좋은 점을 강조하고 조직사업만 잘 짜고들면 능히 콩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는 기사장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농장에서는 이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조건에 맞게 종자도 선택하고 적지도 바로 정하였다. 그리고 정보당 콩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작업반들에서 많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주게 하였다.

여기서 일군들은 제1작업반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적극 떠밀어주면서 다른 작업반들이 경쟁적으로 따라서도록 하였다.

이뿐만아니라 농장에서는 모판단계에서 순치기를 진행하여 콩포기의 아지수를 늘이였으며 강냉이와 감자를 겹재배하는 포전에서 감자를 수확한 다음 콩을 심어 부침땅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였다.

이 농장의 경험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콩농사를 과학적으로 할 때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문길수

삭주군 읍협동농장의

예견성있게 대책을 세워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콩밭가꾸기를 잘해나가고있다.

콩밭비배관리가 한창이던 지난 어느날 포전들을 돌아보며 작황상태를 료해하던 관리위원장은 한 콩포전에서 콩꽃이 피여나는것을 보게 되였다. 즉시 포전에서 농장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고 좋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한시바삐 콩의 생육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꽃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꼬투리로 전환된다는데 견해의 일치를 본 일군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잎덧비료를 적기에 과학적으로 주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콩은 뿌리만이 아니라 잎이나 줄기를 통해서도 영양물질을 흡수하는것만큼 덧비료를 주면 콩의 생육을 더 좋게 할수 있었던것이다.

농장에서는 잎덧비료주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힘을 넣었다. 작업반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잎덧비료를 제때에 주는것이 콩의 소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는것을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나갔다.

잎덧비료주기가 시작되자 비료시비공들은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해나섰다.

제2작업반원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잎덧비료주기를 실속있게 해나갔다.

제1작업반원들도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콩낟가리를 높이 쌓을 한마음으로 일손을 다그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포기마다에 정성을

허천군 와포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포기의 콩이라도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농장일군들은 때없이 많은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부는 조건에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사업을 앞질러가며 짜고들고있다.

제2작업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이들은 비바람에 한포기의 콩도 넘어지지 않게 북을 듬뿍듬뿍 주면서 콩밭에 물도랑을 깊숙이 째주어 비물이 쪽쪽 빠지게 하고있다.

제4, 1, 3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모든 콩밭을 꽃밭처럼 가꾸면서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한포기의 콩이라도 넘어질세라, 한평의 땅이라도 씻겨내릴세라 정성을 다해가는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정에 의하여 콩포기들의 생육상태가 좋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최첨단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의학과학기술

제13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우리 인민과 보건부문 일군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평양에서는 제13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이번 전시회는 온 나라 인민이 당창건 65돐과 다가오는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과감한 공격전투를 벌려나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열린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과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전시회가 진행되고있는 3대혁명전시관의 새기술혁신관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전시회장에서 우리는 보건성 일군인 김철수동무를 만났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 전국의 수십개 단위 각급 보건기관, 기업소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보건일군들이 창조한 수천건의 의학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실물과 함께 도판 그리고 다매체편집물형식으로 전시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시회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해나가려는 보건부문 일군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고무추동하고 나라의 의학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전시회장에 들어선 우리는 먼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전시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의학교육의 원종장에서 사업하는 긍지를 안고 대학안의 교원, 연구사, 의사들은 이번 전시회에 많은 의학과학기술성과물들을 전시하였다. 출품된 전시품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학장 박사 김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은 〈사람용조류독감성분예방약〉을 비롯하여 〈새로운 유전자발현체계와 재조합사람인터페론α2b생산방법〉, 혈전용해제 〈알긴산메틸류산나트리움〉, 〈경비법에 의한 뇌하수체종양수술〉,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간절제용수술기구〉를 비롯하여 170여건의 가치있는 의학과학기술성과물들을 전시하였습니다.》

눈여겨볼수록 하나같이 인민보건실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창조물들이였다. 첨단돌파의 기상이 력력한 이곳 전시대의 전시품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발걸음을 옮길줄 몰랐다. 거기서는 벌써 참관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설선전사업과 과학기술정보봉사활동이 진행되고있었다.

그런가하면 의학과학원전시대앞에서도 도입일반화를 목적으로 한 격식없는 과학발표회와 기술자료제공사업이 한창이였다. 특히 부정맥치료약제 《다우레노이드알약》을 비롯하여 특허제품인 《섬소고삼항암주사약》과 승강기고무손잡이소독용 《나노은항균칠감》, 《단삼뇌혈전주사약》 등 가치있는 의학과학기술성과물들을 전시한 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은 진지하게 물으며 열심히 적고있었다.

설명을 들을수록 의학과학원전시대의 전시품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신심에 넘치는것들이였다.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첨단수술에 속하는 취두부령역암과 심장점액종의 외과적치료방법을 비롯하여 많은 전시품들을 전시한 김만유병원전시대, 첨단기술에 의한 불임증치료방법 등 200여건의 전시품을 전시한 평양산원전시대, 수백명의 환자치료에서 높은 치료효률을 보장하고있다는 알카인국소주입에 의한 대퇴골두무균성괴사치료방법 등을 전시한 철도부문전시대, 질병동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는 《질병의 역학분석 및 자료관리프로그람》 등을 전시한 중앙위생방역소전시대, 조직배양한 약초와 고려약엑스제품, 피막화된 고려약, 새로 개발된 고려약과 차 등을 수많이 전시한 고려약생산부문전시대, 몇가지 검사지표들을 콤퓨터상에서 판찰, 조절할수 있게 제작된 《2중보온가열식진공농축기》 등을 전시한 서성고려약공장전시대, 《수자식자동온도조절기》, 《위생방역업무지원프로그람》, 《지효성비날론살균천》, 《혈액세포의 신속염색액》 등 실천적의의가 큰 전시품들을 전시한 평양시, 강원도, 황해북도를 비롯한 각 도들과 고려의학과학원, 보건성피부병예방원, 평양안과병원의 전시대에서 참관자들은 발걸음을 옮길줄 몰랐다. 어디를 돌아보나 이처럼 훌륭한 성과들을 하루빨리 실천에 받아들이려고 경험을 나누는 모습들이 전시회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는듯싶었다.

이번 전시회의 심사사업을 맡고있는 한 일군은 지난해에 비하여 400여건이나 더 전시된 전시품들이 하나같이 인민보건실천에 이바지되고있는것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10월의 축전장으로 향한 올해의 총진군길에 이바지될것이라고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최첨단돌파의 기상이 나래치는 제13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전국의 보건부문 일군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 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혜산의학전문학교에서

사상교양사업은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될 때 보다 큰 실효를 거둘수 있다.

혜산의학전문학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교양을 교육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잘 짜고들어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교육조건, 교육환경개선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충실성교양은 산모범을 가지고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큰 은을 낼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정숙사범대학과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또다시 찾으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은 교직원, 학생들을 끝없이 흥분시켰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과학기술인재육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교정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휩싸이고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발자취에 자신의 숨결과 지향을 같이하려는 교직원, 학생들의 불타는 열정으로 끓어번지였다.

초급당비서 강옥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교원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을 더욱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특히 교육부문에 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통한 선군령도업적교양을 교육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데 힘을 넣었다.

학교에서는 해당 대학들과의 련계밑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자료들과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교직원들의 투쟁자료들을 비롯하여 선군령도업적교양을 참신하고 실효성있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강연과 학습, 선동 등 여러 계기들에 품을 들여 마련한 자료들을 잘 안받침하여 선군령도업적교양을 생동하면서도 감동깊게 해나갔다.

교장 박진, 부교장 정혜영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교원들속에 들어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정력적으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와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들도 교육환경과 교육조건개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호소하였다.

강좌장 조광히동무를 비롯한 교직원들속에서 모범적인 소행자료들이 발휘될 때마다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깨끗한 충실성과 결부시켜 달성한 성과들을 널리 소개평가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것이 곧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하였다.

교육실천과 결부된 교양사업의 실효성은 컸다.

손옥순, 리은동무를 비롯한 림상의학강좌 교원들은 현장실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꾸릴것을 결의하고 현지로 떠났으며 강좌장 리영경동무를 비롯한 사회과학강좌 교원집단은 학생교양에 의의있는 새로운 다매체편집물들을 제작할 목표를 내걸고 사색과 열정을 합쳐갔다.

이들만이 아니다. 편의봉사시설을 훌륭히 꾸리며 축산기지와 부업기지를 잘 조성하여 교직원, 학생들이 실지 그 덕을 볼수 있게 할것을 결의해나선 심홍빈동무를 비롯한 후방경리부문의 일군들과 직원들…

교정이 들끓었다.

교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교육환경꾸리기에 앞장서니 놀라운 성과들이 창조되였다.

짧은 기간에 교사복도개건을 완성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학교자체의 힘으로 할수 있겠는가고 우려하던 2층짜리 교사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칠수 있은것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원격교육실습을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된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선군조선의 참된 애국자, 강성대국의 뿌리가 되려는 이곳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불타는 열정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본사기자 리은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중조우호방문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5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신기 중국국제우호련락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조우호방문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단장은 방문록에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며 중국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있을것이라는 글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5일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박재수 조선대학교 조선어연구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교육일군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에 앞서 4일 박재훈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생일상이 4일 보통강구역 보통강1동에서 사는 백살장수자 리경희할머니에게 전달되였다.

생일상을 받아안은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해방전 망국의 설음을 안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할머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

그는 당과 수령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할 한마음안고 성실히 일해왔다.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 할머니는 건강한 몸으로 지금도 일손을 놓지 않고있다.

그는 가정에 베풀어주신 백두산3대장군의 한량없는 사랑에 대하여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있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백살장수자의 가족, 친척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중조우호방문단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우의탑에 화환 진정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신기 중국국제우호련락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조우호방문단이 5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조선의 항일혁명렬사들은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방문단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싸운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이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이날 중조우호방문단은 우의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은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방문단성원들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우의탑을 돌아보았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부대통령이 우리 나라 대표단을 만났다

부디오노 인도네시아공화국 부대통령이 4일 쟈까르따에서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박의춘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라덴 모함마드 마르띠 물리아나 나딸레가와인도네시아외무상, 관계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부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1965년 4월 **김일성**주석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여 수카르노대통령과 상봉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조선과의 관계를 계속 좋게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2.16과학기술상 수여

【평양 8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에 대한 2.16과학기술상수여식이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전하철내각부총리, 리자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2.16과학기술상심의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특출한 기여를 한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 연구사 주호성과 초고전력전기로의 제작, 비날론생산공정의 현대화 등 대상과제들을 훌륭히 연구완성하고 도입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국가과학원 공업정보연구중심을 비롯하여 여러 과학연구기관과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2.16과학기술상 증서와 메달이 수여되였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여러 단위 일군들과 연구사들에게 과학기술혁신상 증서가 수여되였다.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2.16과학기술상을 받아안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커다란 과학기술성과로 맞이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적극 발동하면 그들속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 합리화안이 얼마든지 나올수 있으며 경공업의 현대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수 있습니다.》

문수옷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경공업혁명방침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 제품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년간계획을 기어이 완수할 자신만만한 투지로 과감히 돌진.

속보판의 박력있는 글발들은 종업원들의 투쟁열의를 잘 말해주었다.

하다면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 김봉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년초부터 높아진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고 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서 큰 힘을 넣은것은 누구나 다 한건이상의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내놓도록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킨것이다. 그래야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부쩍 끌어올려 계획수행은 물론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었다.

생산능률을 높인 비결

문수옷공장에서

기술을 책임진 량영민동무는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며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력을 계발시키는 한편 그들속에서 나온 기술혁신안에 대한 합평회를 조직하여 더 좋은것으로 완성하는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갔다.

공장에서는 또한 기술자들이 다른 단위의 경험을 배워오기도 하고 여러 단위에서 출품한 지구전시회에 참가하여 시야를 넓히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모를 박았다.

이런 속에 수리공 김만길동무는 일반단추와 생김새가 달라 지구도입에서 여간 애먹지 않던 문제를 자체로 해낼 굳은 의지를 안고 대담하게 달라붙었다.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한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그는 현존 생산토대를 리용하여 능률적인 지구를 창안하기 위해 진지한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드디여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귀중한 열매를 안아오게 되였다. 이 지구의 도입으로 지난 시기에 비하여 생산성은 무려 7배이상이나 높아졌으며 여러 사람의 로동을 대신할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는 대중의 창발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에 분발해나선 기술자, 로동자들은 진취적인 일본새로 여러가지 지구와 장치 등을 만들어냈다. 테프와 주머니접어다림지구, 전자식실측정기, 고정재단설비에 설치된 전동기의 합리적인 개조…

공장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였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리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말하였다.

성과의 비결은 다름아닌 기술혁신에 있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끊임없는 창조정신을 발동하면 얼마든지 단위시간당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높일수 있다고.

본사기자 오철훈

호평받는 제품에 비낀 애국의 열정

홍원철제일용품공장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을수 있게 질적으로.

홍원철제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는 이런 관점이 확고히 서있다. 이들은 제품의 질이 높으면 생산을 늘이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있다.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은 그 어느것이나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이곳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데는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숨은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지배인 김종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혁신집단을 새로 꾸리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데 맞게 그 질과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는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이들은 기술혁신집단에 망라되여있는 능력있는 기술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설비제작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오랜 기술자인 김태웅동무는 왕성한 일욕심으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그는 로동자들과 창조적힘을 합쳐가며 산소발생기와 수많은 설비들을 제작하여 제품생산에 리용하게 하였다.

이 나날에 합리화안과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많이 내놓았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기능공들을 믿음직하게 키워내여 한몫씩 맡아 해제끼게 하였다.

또한 그는 합리적인 열처리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열처리후 새로운 가공방법으로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들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한다는 한마음안고 기술자들은 단조설비와 연마설비를 자체로 설계한데 이어 불굴의 정신력으로 짧은 기일안에 제작과제를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제품의 질을 한계단 끌어올릴수 있게 사출설비제작에로 기술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만만한 자신심을 가지고 달라붙은 이들은 기세드높이 련속적인 공격전을 벌려 가위손잡이를 사출할수 있는 여러대의 설비를 만들어냈다. 결과 주요공정이 더 보강되여 생산능력은 부쩍 올라갔으며 보다 질높은 제품을 제작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한편 일군들은 사용과정에 닳거나 못쓰게 된 유휴자재를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하기에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이 공장은 그리 소문나지 않은 자그마한 단위이지만 생산되는 여러가지 가위제품은 그 질이 높아 홍원군주민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뿐만아니라 다른 시, 군의 사용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호평받는 가위제품, 여기에는 무엇을 하나 생산해도 질적으로 만들어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려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비상한 애국의 열정이 그대로 어려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계설비들의 CNC화를 적극 추진할데 대한 공동구호의 요구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생산공정현대화에 힘을 넣어

강동기초식품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것입니다.》

강동기초식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최근년간 이들은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낡은 생산설비들을 대담하게 개조하는 한편 새로운 설비들을 창안제작하여 기초식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지배인 박영복, 책임기사 고태순동무들이 남먼저 현대화사업에 뛰여들었다. 이들은 고심어린 탐구를 거듭하여 된장생산에서 원료익히기공정의 설비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그 시간을 앞당길수 있게 하였다. 발효숙성공정에 온도수감장치를 도입하고 이것을 콤퓨터화함으로써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시기에 콘베아로 제품을 밀폐식탕크에 운반하던 공정의 낡은 설비를 대담하게 들어내고 된장압송기를 새로 창안제작하여 생산물의 관수송을 실현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위생학적으로도 철저히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종전에 콘베아를 가동시킬 때 쓰던 전동기와 감속기들이 필요없게 되여 그 설비들을 다른 곳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었으며 작업공간이 훨씬 넓어져 생산자들이 활동하기에도 편리하게 되였다.

생산공정현대화의 좋은 점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종업원들은 저저마다 혁신적인 방안들을 적극 제기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기세가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전자저울에 의한 제품출하장치가 련이어 완성되였고 이것을 콤퓨터에 의해 조종하는 현실이 펼쳐졌으며 기름생산공정을 실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 높은 기초식품생산성과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이하기 위해 생산공정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백성근

반역 《정권》은 자주와 평화, 통일의 엄중한 장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위업에 도전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서 감행되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당국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칠 흉악한 계책밑에 그 무슨 《안보불안》에 대하여 떠들면서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코에 걸고 조선동해상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을 발광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정세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로 몰아갔다. 한편 괴뢰당국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차단하고 집권후반기 권력안정을 이루기 위해 각계 진보세력들에 대한 폭압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반역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이 더욱 억제되고 조선반도의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외세와 공조하여 북남대결과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이다.

리명박일당의 속심은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 공화국을 모해압살하자는것이다. 이로부터 남조선보수패당은 집권초기부터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웠으며 우리의 무장해제와 압살을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을 내들고 북남관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리념밑에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위업을 추동해나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최근 더욱 악랄해지는 괴뢰들의 외세의존, 동족대결책동은 북남관계를 예측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괴뢰들은 함선침몰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본격화하고있다. 얼마전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조선동해상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을 벌려놓은것은 그들이 외세의 비호밑에 동족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괴뢰군부패거리들은 미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매국적망발을 줴치면서 각종 전투기와 함선들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련합해상훈련에 내몰고 북침전쟁열을 악랄하게 고취하였다. 괴뢰호전광들은 련합해상훈련이 《북에 대한 압박》에 목적을 두고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임으로써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민족의 운명을 해치는 반역배로서의 범죄적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괴뢰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갖은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주민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북의 침투》를 가상한 《전쟁각본》공개응모, 《6. 25전쟁안보교육지원》과 같은 반공화국광대놀음을 요란하게 벌리고있다. 지금도 남조선 전지역에서는 지난 조선전쟁의 진상을 외곡하고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분위기를 고취하는 반공화국모략극들이 끊임없이 연출되고있다. 이것은 보수패당이 우리를 동족으로, 화해와 단합의 일방으로가 아니라 대결상대로 여기고있다는 명백한 실증이다. 괴뢰군부가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다시 쪼아박으려고 시도하고있는 사실도 보수패당의 악랄하고 집요한 대결관념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괴뢰들의 외세의존,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사활적운명이 걸린 조국통일위업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 조선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짙어가고있다. 보수패당의 망동은 극악한 매국반역행위로서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인민들의 자주적, 민주주의적진출을 무자비하게 가로막고 과거의 독재시대를 되살리려고 날뛰는 극악한 파쑈독재세력이다.

리명박일당은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는 반역정책을 실시한것으로 하여 지난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였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반역패당은 각계 진보세력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압만행을 감행하면서 집권위기를 모면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지금 파쑈광들은 사회적진보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의로운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종북세력》이니, 《리적세력》이니 하는 감투를 씌우면서 그들의 정당한 활동을 폭력으로 탄압하고있다.

보수패당은 남조선내부에서 파쑈체제구축에 열을 올리고있다. 반역패당은 이미 거덜이 난 《색갈론》까지 다시 꺼들면서 사회적진보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단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얼마전 괴뢰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역도는 국제무대에까지 나가 저들의 반역통치를 합리화하면서 정의로운 투쟁에 나선 남조선청년들을 모독하다 못해 그들에게 《북에 가서 살라.》는 악담까지 퍼부었다. 남조선 각계는 역도의 발언을 한결같이 비난하면서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리념적색갈공세로 북풍몰이에 나선것》이라고 폭로하였다. 파쑈광들은 얼마전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가 《북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떠들면서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둘러 이 단체를 《리적단체》로 판결하였다. 우리 민족 련방제통일추진회의, 미군철수운동본부를 비롯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각계 진보적단체들이 모조리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세월 외세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쑈통치하에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당하여왔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반역통치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사활적과제로 제기되고있다. 그들이 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누구의 《지령》이나 부추김에 의한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지향과 의사에 따른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일당은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을 《친북좌파》, 《종북세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으며 지어 그들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고문행위까지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보수패당이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진출을 가로막고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얼마나 발악적으로 날뛰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북침전쟁위험을 몰아오면서 남조선사회를 철저히 파쑈화하고있는 반역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앞길을 성과적으로 열어나갈수 없다.

우환거리를 제때에 제거하지 못하면 더 큰 화를 입게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역적패당의 준동에 각성을 높이고 반《정부》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선군정치는 만능의 보검

《군사적대치의 첨예성과 무력배치의 집중도에 있어서 그 어디와도 대비할데 없는 이 땅은 전란의 위험이 닥쳐온적이 한두번이 아닌 초긴장지역이다. 어느때든지 폭발할 〈시한탄〉을 안고있는 이 땅이다.

현대전에서는 전후방이 따로 없고 전쟁의 참화도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이 재난을 막고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는것이 북의 선군정치이다.

김정일령수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민족의 군대, 민중의 총대가 없어 겪어야 했던 수난의 력사, 침략과 전횡이 강요되는 오늘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으며 자주와 존엄의 시대, 민중의 복된 세상을 열어나가는 인류리상의 정치방식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게재된 《이 땅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글의 한 대목이다.

이 한편의 글을 통해서도 력사의 온갖 시련을 맞받아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에 나라의 평화가 있고 민족의 양양한 미래가 약속되여있음을 굳게 믿고있는 남녘겨레들의 심중을 엿볼수 있다.

미제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안고사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수호는 그 무엇보다도 사활적인 문제이다.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무력증강책동과 북침핵전쟁연습들, 모험적인 선제공격기도는 수십년세월 우리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항시적불안정을 제거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며 평화와 번영을 담보해줄 참다운 정치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남녘겨레들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서 찾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를 떠나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도 생각할수 없고 조국통일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그들모두의 한결같은 확신이다.

얼마전 전주의 한 통일운동단체성원들이 조직한 《민족의 운명과 선군정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울려나온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여보자.

《사실 이북이 선군정치로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지 않았다면 삼천리강토는 벌써 핵전쟁의 불길속에 휘말려들었을것이고 남북은 다같이 참혹한 피해를 입었을것이다. 이북의 선군정치야말로 핵전쟁을 막는 평화의 방패이고 민족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는 무적의 무기이며 조국통일투쟁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백승의 기치이다.》

《그렇다. 이북의 선군정치는 만능의 보검이다. 민족자주통일의 앞길도 바로 선군정치가 열어나가고있다. 21세기 민족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 15공동선언도 우리 이남민중누구나 인정하는것처럼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하여 마련된것이다. 그러니 북의 선군정치야말로 조국통일의 열쇠, 통일의 보검이라고 해야 마땅할것이다.》

비록 이 땅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어도 겨레가 통일에 살고 평화에 사는것은 선군의 힘이 있기때문이다.

민족자주, 민족공조에 기초하여 힘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이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전쟁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시련과 난관을 겪고있지만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기에 자주통일은 확정적이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는 남녘겨레들은 너도나도 선군옹호의 길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언론인모임》은 《선군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결의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제부터 우리의 취재는 선군정치에 기초한 이북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제어하고 상식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세워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활동으로 될것이다. 이는 또한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결정적추동력을 력사에 기록하는 취재활동으로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선군정치에 대한 열렬한 지지찬양의 목소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따르는것이 하나의 거세찬 흐름으로,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5일 다음과 같은 보도 제962호를 발표하였다.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북침전쟁불장난에 계속 매달리면서 정세를 더욱 험악한 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지금 괴뢰패당은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얼마전 미국과 조선동해에서 우리를 겨냥한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서해상에서 련이어 괴뢰륙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의 방대한 무력과 구축함, 잠수함, 전투기 등 각종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대잠수함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괴뢰패당은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전쟁연습기간 북남쌍방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조선서해 5개 섬 린근수역에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지상, 해상, 수중사격훈련까지 벌리려고 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계획적인 군사적도발이다.

괴뢰패당이 전쟁연습의 구실로 들고나오는 《천안》호사건으로 말하면 이미 그 모략적정체가 낱낱이 드러나 거덜이 날대로 나고 조소와 비난거리가 되여 망신만 당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함선침몰사건을 계속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 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세계면전에서 참패와 망신을 당한데 대해 분풀이하고 어떻게 하나 여론을 오도하여 북침흉계를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미친자들의 추악한 망동이다.

더우기 이번 훈련과 관련하여 우리 군대가 강력한 물리적대응타격으로 진압할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훈련강행》을 운운하며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는것이야말로 전쟁불장난에 환장이 된자들이 제가 당할 파멸적후과도 모르고 날뛰는 자살적인 최후발악이 아닐수 없다.

역적패당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련이어 벌려놓고있는 전쟁연습소동은 지난 조선전쟁전야에 38°선일대에서 군사적도발을 매일같이 일삼으며 발광하던 그때를 신통히 방불케 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역적패당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만약 괴뢰호전광들이 감히 불질한다면 예상을 초월한 가장 위력한 전법과 타격수단으로 도발자들과 그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놓을것이다.

괴뢰들이 그러한 참변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때를 맛보게 될것이다.

우리는 그 기회에 겨레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복수를 담아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깨끗이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세기적숙원을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괴뢰군호전광들이 서해해상에서 대규모합동해상전쟁연습 감행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동해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해상전쟁연습을 벌린데 이어 조선서해에서 대규모합동해상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벌어지는 이 전쟁연습에는 괴뢰륙해공군과 해병대병력 4 500여명, 구축함, 잠수함, 초계함을 비롯한 각종 함선 29척, 《F—15K》, 《KF—16》 등 50여대의 전투기들이 집중투입된다고 한다.

괴뢰들은 해상전술기동과 우리의 잠수함과 함선, 비행대에 대한 공격, 함포사격, 어뢰발사, 폭뢰, 기뢰투하, 특공대침투조법을 완성하는데 기본을 두고 이번 전쟁연습을 감행하고있다.

우리의 면전에서 벌어지고있는 이 전쟁연습의 심각성은 그것이 그대로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극히 위험천만한 불찌로 되고있다는것이다.

상전과 주구가 한짝이 되여 우리에 대한 《무력시위》와 《강한 압박》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긴 이번 전쟁연습들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과 동북아시아지역을 과녁으로 하고있다.

《천안》호사건을 날조하고 그것을 구실로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무분별한 해상전쟁연습들은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지배권확립을 위한 전략적기도의 발로이다.

조선서해는 이미 3차례의 해상교전이 벌어지고 괴뢰역적패당이 함선침몰사건이라는 광대극을 연출한 문제의 수역이다.

이 예민한 해상에서 괴뢰군호전광들이 광란적인 합동해상전쟁연습을 벌려놓은것은 함선침몰사건의 모략적진상을 가리우고 전면전쟁을 일으키자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괴뢰군호전광들의 부질없는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다치면 터질듯 한 긴장국면이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불은 불로 다스리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군대의 확고한 립장이고 기질이며 본때이다.

선군으로 백배해진 우리의 모든 타격수단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합동해상전쟁연습에 돌아치는 목표들을 정확히 겨냥하고있으며 일단 사소한 공격기도라도 보이기만 한다면 즉시 반공화국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전쟁광신자들과 살인장비들을 모조리 바다깊이 수장해버릴것이다.

백두산총대는 결코 빈말을 모른다.

그들은 왜 투쟁에 나섰는가

최근 남조선문화예술계에서 오만과 독선,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 보수패당을 단죄규탄하는 다양한 형식의 창작활동이 벌어져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2월 2 500여명의 남조선작가들은 리명박역도의 민주주의말살책동을 반대하는 집단적창작활동을 벌릴것을 호소하고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들을 비판하는 작품들을 창작하여 인터네트와 출판물들에 발표하였다.

이어 1 690여명의 영화인들도 영화계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소속의 영화관들에서 자기들의 작품을 상영하는것을 거부해나섰다. 이보다 앞서 미술계에서는 미술전시회를 열고 《삽질공화국》을 비롯한 수많은 반《정부》작품들을 전시하였으며 음악계에서는 《힘내라, 민주주의여》라는 주제의 음악회를 열고 보수패당의 반역정책을 비판한 노래들인 《달이 차오른다》, 《별일없이 산다》와 집권자를 풍자조소한 《우리 반 반장 임영박》을 비롯한 반《정부》가요들을 창작공연하였다.

남조선문화예술계에서 반《정부》창작활동이 이처럼 대중적으로 전개되고있는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한마디로 진보적인 문화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에 대한 보수당국의 탄압이 극도에 달하였기때문이다.

《좌파세력척결》에 환장이 된 보수패당은 문화예술부문에서도 《좌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국립국악원》 원장,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문화예술계의 진보적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소동을 벌렸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초불시위에 참가하여 공연을 하고 통일문제를 가극에 올린것을 문제시하면서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산하 《미래》가극단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하고 공연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압수하였다.

지난해에는 540여개의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민족예술인총련합, 독립영화협회 등에 《좌파세력의 근거지》라는 딱지를 붙여 《정부》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진보적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섰다. 올해 3월에도 《정부》보조금을 받는 1 800개의 문화예술단체들에 반《정부》시위에 참가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확인서에 수표하도록 강요하는 등 별의별 비렬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진보적인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억제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보수패당의 이런 반민주적인 탄압행위는 남조선문화예술인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역적패당의 집권이후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된것도 그들이 반《정부》투쟁에 나서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보수당국의 매국반역적인 정책으로 남조선에서 경제파국이 심화되고 영화업계를 비롯한 문화예술부문에서마저 시장개방이 촉진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은 문화예술인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좌파척결》을 떠들면서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활동을 각방으로 방해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난은 더욱 심화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문화예술인들속에서 보수《정권》에 대한 환멸과 증오심을 자아냈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역적패당의 독재통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와 울분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복 은 희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위해 싸워나갈것을 호소

남조선의 《4월혁명회》가 7월 29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각계층이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위해 싸워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조선동해에서 북을 겨냥한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미국과 그에 추종한 리명박《정권》의 반공화국대결책동, 침략《동맹》강화는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 등 각계각층이 미국과 리명박《정권》의 전쟁소동과 대결책동을 반대하는데서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적극 떨쳐나설데 대해 그들은 강조하였다.

함선침몰사건의 옳바른 진상규명을 요구

남조선의 《〈천안〉함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이 7월 29일 서울에서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얼마전 로씨야의 조사단이 함선침몰의 원인을 《북의 어뢰공격》이 아니라 기뢰폭발에 의한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로써 당국이 제시하였던 《결정적증거》들이 사건과 무관하다는것이 명백히 증명되고 《북의 어뢰공격설》은 신빙성을 더욱 잃게 되였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아무런 과학적, 객관적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들을 반박하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의혹을 증대시키는것으로 된다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정부》내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리명박《정부》와 여당이 각계층의 《국정조사》요구를 받아들이고 북과의 공동조사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이것만이 사건을 옳바로 규명하여 조선반도전쟁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주세력에 대한 비렬한 탄압책동을 규탄

진보세력초토화를 노린 파쑈적흉계

얼마전 괴뢰대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를 파쑈적인 《보안법》에 걸어 《리적단체》로 판결하였다. 법관의 탈을 쓴 파쑈광들은 이 단체가 강령과 홈페지를 통해 반미자주화와 미군철수, 련방제통일, 자주적민주정부수립 등을 주장한것은 《북에 동조》한것이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

실천련대는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10월에 결성되였다. 이 단체가 지금껏 그 누구에게 동조하여 활동하였다는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이 단체가 주장한 반미자주화와 련방제통일, 자주적민주정부수립이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이라는것은 론할 여지조차 없다. 더우기 자주와 민주, 련방제통일을 위한 이 단체의 활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 15공동선언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실천련대를 《리적단체》로 규정한것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리행을 거부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련북통일기운을 차단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투쟁하고있는 진보세력들을 기어코 말살하기 위한 리명박《정권》의 또 하나의 무지막지한 전횡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지금 남조선에서 《리적단체》로 규정된 실천련대를 비롯한 각계 진보적단체들의 통일애국활동을 비법화할 흉악한 계책이 꾸며지고있는 사실이다.

괴뢰대법원이 실천련대를 《리적단체》로 규정하자마자 극우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그 무슨 사설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보수언론은 글에서 남조선에 북을 두둔하는 《리적단체패거리》가 존재한다느니, 《종북의 독버섯》이라느니 하고 악청을 돋구면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범민련을 비롯한 진보적단체들을 강제해산시키거나 아예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립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독기를 뿜어댔다.

최근 남조선에서 전례없이 살벌해지고있는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을 놓고볼 때 이것을 개별적언론의 주장이라고만 볼수 있겠는가. 《조선일보》가 보수세력의 의사를 대표하는 반역《정권》의 대변인격이라는 측면을 놓고볼 때 더우기 그렇다.

리명박패당은 집권초기부터 그 무슨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를 떠벌이며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련대, 실천련대, 진보련대, 《전교조》를 비롯한 각계 진보세력들의 장성과 진출을 각방으로 가로막아왔다. 폭압에 환장한 파쑈광들은 과거 독재시기의 통치기구와 수법을 그대로 되살리면서 《보안법》을 휘둘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온 단체들과 그 소속 인사들을 《리적분자》, 지어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지어 이 단체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각계의 후원을 봉쇄하는 비렬한 놀음까지 벌리였다.

하지만 리명박패당은 지난 《지방자치제선거》에서 그 파쑈적악행의 대가를 치르었다. 이로부터 보수패당은 진보세력들의 반《정부》투쟁을 더욱 철저히 억눌러놓지 않고서는 집권후반기 권력안정과 재집권야망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간파하게 되였다. 그 흉악한 기도의 산물이 바로 진보적단체들의 활동을 《리적》으로 몰아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놀음이다.

사실 보수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처음이 아니다. 파쑈광들은 이미 몇년전부터 《리적단체》로 판결된 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활동을 억제하는 파쑈악법을 조작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야당들과 각계 단계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 사대매국과 반인민적인 악정, 반통일대결책동으로 극도의 통치위기에 빠진 보수패당은 지금 그로부터의 출로를 진보세력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의 강화에서 찾으면서 진보적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 완전히 말살해치울 음모를 꾸미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과 6. 15공동선언의 리행, 북남사이의 화해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의로운 투쟁을 벌려오고있는 단체들을 범죄시하다 못해 전면초토화공세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이런 극악한 파쑈독재광들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이 실현될수 있겠는가.

독초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하듯이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의사에 도전해나서는 매국반역의 무리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본사기자 김 향 미

미일침략자들의 범죄적인 공모결탁을 단죄

남조선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련합》, 《독립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한 80여개 진보단체들이 미일침략자들의 범죄적인 공모결탁에 의한 《타프트—가쯔라협정》조작 10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7월 29일 서울에서 《민족자주력사대회》를 가지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05년전 미국과 일본이 밀담을 벌려놓고 조선강점을 위한 협약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운명과 신성한 령토를 유린하는 범죄적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하였다.

이번 대회는 미일침략자들의 범죄적인 공모결탁의 진상을 명백히 까밝히고 두번다시 외세의 수모와 롱락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였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일본이 과거 조선침략죄행에 대해 사죄, 배상할 대신 오늘까지 군국주의부활과 력사외곡, 독도강탈책동에 매달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룩할 때만이 그날의 치욕과 수난의 상처를 완전히 가실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남과 북, 해외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높이 단결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선언문이 랑독되였다.

선언문은 《타프트—가쯔라협정》은 약육강식을 체질화한 미일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의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게 책동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력사적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겨레에게 식민지노예의 설음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강요한 미국과 일본은 인류사회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선언문은 지적하였다.

선언문은 군국주의부활에 돌아치는 일본과 이를 적극 부추기는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7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를 민족자주력사운동기간으로 정하고 반미, 반일, 반전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각계층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밑에 민족공조를 실현하고 조선반도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민족의 평화통일념원을 성취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선언문은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소동에 항의

남조선의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괴뢰패당의 탄압소동을 규탄하여 얼마전 서울의 홍제동 《대공분실》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공안당국이 범민련 경기인천련합의장 서상철에 대한 소환조사놀음을 벌려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5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무실들과 핵심성원들의 살림집들에 대한 광란적인 강제수색소동에 련이은것이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실적쌓기》에 급급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에 이어 산하 지역단체들에로 탄압의 마수를 뻗치고있는것은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집요한 폭거라고 규탄하였다.

살벌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각종 폭압기구와 파쑈세력이 존재하고있는 한 민중의 권리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보안법》을 페지하고 《정보원》, 《보안수사대》와 같은 폭압기구들을 하루빨리 해체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집회의 자유를 짓밟으려는 《한나라당》의 책동에 항의하는 남조선인민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경축행사 진행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남아프리카에서 7월 24일 경축집회와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남아프리카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진보적사상연구소조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인 남아프리카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보나켈레 마주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올해 7월 27일은 조선인민이 미국을 타승한 때로부터 57돐이 되는 날이다.

미국이 저들의 방대한 무력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괴뢰군 그리고 구일본군잔당들까지 동원한 조선전쟁은 사실상 또 한차례의 세계대전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짓부시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시였다.

조선은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여러차례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제의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오히려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벌릴 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최신전쟁장비들과 핵타격수단들까지 동원하고있다.

현실은 누가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군사장비들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남조선당국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반공화국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조 위원장 에디에 케카나는 미국이 조선인민앞에 항복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때로부터 5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은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1998년 4월 18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뜻대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고계신다.

그이의 통일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북남수뇌상봉들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였다.

현 남조선당국은 외세를 등에 업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해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면서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이러한 책동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진보적인류로부터 강력한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내놓은 공명정대한 방안에 따라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

신문, 방송이 보도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캄보쟈의 신문, 방송이 기념보도를 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나툰 방글라》 7월 22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 승리의 7.27》, 《세계의 주목 : 조미평화협정체결문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등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신문은 조선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미대결은 계속되였다고 하면서 반세기이상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의 하나로 되여왔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리고있는 대규모군사연습들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예고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나라의 신문 《블리즈》 7월 22일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에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위대한 승리의 날》, 《영원한 승리》 등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7월 20일 캄보쟈의 에프엠 90.5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래전부터 제기하고있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할데 대한 문제는 미국의 외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로골적인 핵선제공격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은 부득불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갔으며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였다. 미국은 저들의 핵위협은 외면하고 조선에 대해 무조건적인 무장해제와 《선핵포기》를 주장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조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평화협정이 체결되여야 한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열리기만 하여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효률적인 추동력이 마련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한것은 미국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로 된다.

미국은 부질없는 시간끌기로 더 큰 화를 초래하지 말고 조선의 제의에 지체없이 응해나와야 한다.

블레찐 발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서 《〈인권재판관〉의 진면모》라는 제목으로 블레찐 제12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글에서 미국은 해마다 부피두터운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기 좋아한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여러 나라들을 시비질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 미국자체의 인권형편은 어떠한가고 반문하고 블레찐은 미국에서 극심한 인종차별로 하여 흑인들과 소수민족출신 주민들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당하며 갖은 멸시를 받고있는데 대하여, 미행정부의 묵인, 조장밑에 관따나모기지감옥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수용소와 감옥들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와 고문만행이 감행되고있는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폭로하였다.

블레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국, 인권유린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하기 전에 자기의 인권문제부터 반성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천년기개발목표리행검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특별회의 진행,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연설

천년기개발목표리행검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특별회의가 3일과 4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박의춘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을 비롯한 30여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과 여러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은 연설에서 유엔천년기개발목표가 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되여오고있으나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 깨끗하고 푸른 지구에 대한 인류의 꿈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군사적충돌, 날로 확대되는 군사쁠럭과 렬강들사이에 질어가는 새로운 군비경쟁, 오염과 파괴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지구환경, 세계를 휩쓴 금융경제위기는 오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천년기개발목표달성을 가로막는 주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천년기개발목표에 관한 수뇌자회의를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응당 이러한 실태들에 심중한 주목이 돌려져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천년기개발목표리행과 관련한 대표단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이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온갖 힘의 사용과 그 위협을 반대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 국제사회의 주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둘째로, 현 국제경제구조를 공정하게 바로잡는것이다.

본회의는 천년기개발목표리행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남협조에 대한 정치적의지와 공약을 재확인하며 남남협조를 제도화, 기구화하는 과정을 선행시켜 그 효과성을 높이며 남수뇌자회의 결정들을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셋째로, 유엔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유엔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천년기개발목표달성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국제경제구조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유엔의 모든 기구체계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개발지원을 강화하는데 선차성을 부여하고 이 나라들의 요구에 맞는 안정되고 장기적인 자금원천을 확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특히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한 유엔기구들의 개발협조를 그 어떤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는 시도들이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는것이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은 곧 유엔천년기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의의있는 기여로 될것이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평화적환경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조선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있다.

우리가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한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근원을 없애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며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된 폭발적인 사태는 현 정전체제의 위험성과 평화보장체제수립의 절박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와 그 귀결인 우리의 든든한 전쟁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전쟁터로 변하고말았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리념에 따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천년기개발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 남조선의 해상사격소동을 강력한 물리적대응타격으로 진압할것이라고 경고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통고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통고를 3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가 3일 통고를 발표하여 남조선의 해상사격소동을 강력한 물리적대응타격으로 진압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통고는 남조선이 조선서해에서 벌리려는 해상사격소동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조선의 령해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침공행위이며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끝까지 고수해보려는 무모한 정치적도발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서해에는 오직 조선이 설정한 해상분계선만이 있을뿐이라고 통고는 지적하였다.

통고는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남조선의 해상사격소동을 강력한 물리적대응타격으로 진압할데 대한 단호한 결심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통고는 조선서해 5개 섬 린근수역에서 어선들을 포함한 모든 민간선박들이 남측이 설정한 해상사격구역에 들어가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미국의 AP통신, VOA방송과 신문 《뉴욕 타임스》,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NHK방송, 《마이니찌신붕》, 《도꾜신붕》, 《아사히신붕》도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통고의 상세한 내용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의 핵에네르기리용권리 지지

뛰르끼예수상 에르도간이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에네르기리용권리를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은 평화적인 핵에네르기를 리용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란핵문제가 외교적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핵무기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있는 서방의 편견적인 처사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요한 봉쇄책동을 규탄하였다.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

몽골수상 쑤흐바따린 바뜨볼드가 7월 28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의 조치로 지난 시기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해 밝히고 2014년까지 공업개발지구를 건설함으로써 몽골의 지하자원을 원료로가 아니라 완제품으로 수출하는것과 함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총생산액을 현재보다 2~3배로 늘일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정부가 농업을 발전시켜 국내알곡수요를 충족시키며 살림집과 도로, 학교, 병원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자면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간섭 배격

수리아외무성의 고위관리가 7월 29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얼마전 미국무성 대변인이 수리아와 사우디 아라비아국가수반들사이에 진행될 회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쓸데없이 참견해나선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은 수리아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관계에 간섭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수리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다같이 독립국가로서 자기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위한 길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체포령장 발급

에스빠냐고등재판소가 최근 자기 나라 사진기자를 무참히 살해한 3명의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체포령장을 또다시 발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 판사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당시 미군이 기자들이 머물러있는 곳으로 알려진 바그다드의 한 호텔에 무차별적인 땅크포사격을 가하여 자기 나라 사진기자를 살해한데 대해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풍력발전소 건설

중국 강소성에서 2020년까지 풍력발전능력을 1 000만kW로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현재 향수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풍력발전소들이 건설되고있다.

강소성은 풍력자원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

협조

꾸바와 남아프리카가 7월 29일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7월 28일 모잠비끄와 베르데갑은 국방, 안전, 교육 등 분야에서 호상협조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경제 장성

에짚트에서 올해 6월말까지의 2009—2010회계년도에 경제가 5.2% 장성하였다.

새 회계년도에는 경제장성률이 5.5%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7월 28일 이 나라 재정상이 이에 대해 밝혔다.

교육발전조치

우간다정부가 교육발전을 위해 교원양성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나라에서는 올해에 9 540여명의 교원들을 양성하여 초등학교들에 배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원수는 13만 4 17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출 증가

뚜니지에서 올해 상반년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2% 증가하였다.

7월 29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란에서 3월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1.4분기에 손으로 짠 주단수출액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36.73% 늘어났다.

최근 이 나라 신문 《카이한 인터내슈널》이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양끌라에서 건설공사

항의시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벨시에서 7월 25일 시당국의 그릇된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백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시당국자들이 주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 각종 명목으로 저들의 봉급을 턱없이 높여 많은 돈을 타먹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제 침체, 실업자 증대

— 미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7월 22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6월에 전국적으로 살림집판매량이 그 전달보다 5.1%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본련쇄점협회는 올해 상반년에 나라의 주요소매업체들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또 감소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판매량감소는 경제침체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진것과 관련된다 한다.

— 미국에서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7월 22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 17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나라에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46만 4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3만 7 000명 더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단평 깨여진 망상

얼마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미국정부가 국민생활수준격차해소를 위해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여온 《건강한 국민 2010》이 완전히 실패하였다. 미국의 한 조사단체가 50개 주 주민들의 생활을 료해한데 의하면 지역 및 인종별사회적불평등은 이전보다 한층 더 심해졌다고 한다.

결국 수백개의 정부 및 비정부단체들이 참가하고 엄청난 자금을 소비한 이 계획은 미국국민들의 생활수준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는것으로 끝났다.

미국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세계에서 지역적, 인종적모순과 사회적불평등이 제일 심한 나라로 알려져있다. 이런 나라가 국민들의 생활수준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 사득판에 천궁을 세워보겠다는것만큼이나 어리석고 황당한 일이다.

이런것을 두고 오뉴월의 개꿈이라고 한다.

여기에 미국의 한 연구사가 내린 평가가 있다. 그 내용인즉 미국국민의 최하층이 최상층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것은 결국 미국에서 광범한 빈곤층과 극소수의 부유층의 생활상차이는 언제가도 줄일수 없다는 소리이다. 실지로 미국의 현실이 그렇게 되여있다.

그런즉 《건강한 국민 2010》이라는 망상이 깨여진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은 미국식자본주의로는 절대로 인류가 념원하는 리상사회를 건설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에 절대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리경수

중국 길림성에서 무더기비 계속, 압록강류역 등의 강우량 사상최고기록

중국의 길림성에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계속 내린 무더기비로 큰물이 났다.

3일 성 기상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압록강과 도문강류역의 강우량은 각각 256.5㎜, 147㎜, 송화강류역의 강우량은 157.8㎜에 달하여 사상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성에서는 6월 1일부터 장마철이 시작된이래 8월 3일까지 무더기비로 78만 4 000명의 주민들이 긴급소개되고 125만 9 000ha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였다.

총피해자수는 458만 9 000명, 경제적손실액은 264억 3 000만RMB.Y(웬)에 이르렀다.

피해지역들에서 긴급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세계를 휩쓰는 자연피해

여러 나라에서 큰물, 가물, 지진피해

◎ 인디아의 북부지역에서 7월 24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6명이 사망하고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철도, 도로들이 파괴되여 교통이 마비되였다.

◎ 파키스탄에서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7월 24일현재 발루치스탄주에서만도 사망자수가 60명으로 늘어났으며 수천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수십개 마을이 물에 잠기였으며 도로들이 파괴되고 렬차운행이 중단되였다.

◎ 아프가니스탄의 카삐싸주와 라그만주에서 7월 28일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40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하였다.

또한 수백채의 살림집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파괴되였으며 많은 농경지들이 못쓰게 되였다.

◎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7월 25일현재 말루꾸주, 동부깔리만딴주와 보르네오섬에서 도합 2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였다.

◎ 로씨야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가물이 계속되고있다. 가물로 7월 27일현재 6 000여개의 농장들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농경지피해면적은 총 1 000만ha에 달한다. 뻬름변강에서만도 2만 4 000ha이상의 밭에 심은 농작물들이 못쓰게 되였다.

피해지역들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조치들을 취하고있다.

◎ 이란의 동북부지역에서 7월 30일 리히터척도로 5.7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토르바트에헤이디리예시교외에 있었다. 지진으로 110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통신이 단절되였다. 현지에서 긴급구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풍자만화들이 미국에 주는 충고

서방신문들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조소하는 풍자만화들이 련속 실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연기가 흩날리는 파괴된 건물우에서 미국집권자와 한 탈리반성원이 서로 상대방에게 포탄을 날리는 만화를 싣고 거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게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런가하면 미국신문 《인터내슈널 헤랄드 트리뷴》도 이전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 맥크리스톨이 한 아프가니스탄병사의 작별인사를 받으며 수송선에 오르고있는데 부근의 어느 한 산정에서 탈리반병사가 《드디여 쫓겨가는군!》라고 조소를 보내는 만화를 실었다.

흥미본위와 렵기적인 내용을 담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는 서방출판물들이 미군의 패망상을 풍자하는 정치만화를 다룬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만화를 게재한 신문들로 말하면 서방세계에서 제노라고 하는 정객들과 실업계의 거두들, 언론계에서 인기가 있다는 출판물들이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세계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다.

하다면 어째서 서방신문들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서방이 미국주도의 세계라고 하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것이다. 그런데 서방출판물들이 미국을 조소하는 풍자만화들을 싣고있는즉 그에 대해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오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미국내는 물론 동맹국들에서 하나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전쟁이 개시되여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이 언제 끝이 날지 전망이 보이지 않기때문이다.

처음에는 잘되여가는것처럼 보이던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미궁속에 빠져들고 미국이 호언장담하던 《승리》라는것은 신기루에 불과한것으로 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한다고 하면서 무력을 계속 들이밀고있지만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으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소탕작전》을 벌렸지만 탈리반은 여전히 건재해있으며 오히려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있다. 탈리반세력은 미군무력의 증가와 비례하여 군사적공격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이로 하여 미군과 그 동맹군들속에서는 사상자만 늘어나고있다. 최정예를 자랑하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며 맥만 뽑고있다. 미국이 사태를 역전시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을 교체하는 놀음을 여러번 벌렸지만 그들은 매번 패배의 고배를 마시며 쫓겨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번에 맥크리스톨도 그러한 인물들중의 한 사람으로 되였다.

미국이 전쟁비용을 늘이고 무력을 증파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결속해보려 하지만 그 전망은 암담하다. 오히려 늘어나는 전쟁비용은 그러지 않아도 금융위기로 비틀거리는 미국을 경제적파산의 낭떠러지에로 몰아가고있다. 이미 미국의 50개주중 31개 주가 재정위기로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일부 주정부들은 붕괴되는 과정에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형편은 더 급하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성공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되고있다. 미국인들속에서 아프가니스탄전쟁이야말로 한심한 전쟁, 망신스러운 전쟁, 막연한 전쟁이라는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군부인물들속에서도 《암담한 전망에 관한 소식이 수없이 날아들고있다.》, 《언제까지 싸우겠는가 하는것은 수수께끼이다.》라는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들이 왕왕 튀여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그 무슨 《승리》니 《성공》이니 하는 소리들을 외워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갖 허세에 불과하다. 지금 전문가들은 미집권자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하고 다음해 7월에 가서 미군철수를 시작하겠다고 한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미국이 2020년에 가서도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끝낼수 없다고 하고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속에서는 자기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앞으로 10년은커녕 5년도 버틸 가망이 없으며 또 그러한 인내력도 없다는 맥빠진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 있어서 깊은 수렁으로 되고있다. 수렁에는 일단 빠지면 헤여나기 힘들다. 그런데도 미국은 현실에 등을 돌려대고 승산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려 하고있다. 아마 그래서 서방신문들이 보다 못해 풍자만화를 통해서라도 미국에 충고를 주려고 한것 같다.

미국에는 다른 길이 없다. 유일한 방책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의 패배를 자인하고 이 나라에서 하루빨리 물러나는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풍자만화들이 보여주는것처럼 더 큰 참패와 수치를 당하고 쫓겨가는 신세가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학남

ㄱ-01140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